

EAI 여론분석센터

작 성 자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이 메모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

안철수 원장의 향후 행보와 지지자들 표심의 향배

안 전 후보의 향후 행보가 중요한 이유

야권 단일화 협상에서 안철수 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대선구도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의 양자대결로 결정되었지만,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향후 행보와 그의 지지자들의 표심은 대선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등장했다. 안철수 전 후보가 과연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인지, 또한 그의 행보가 안철수 전 후보 지지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안 전 후보가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 지지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안 전 후보 지지자들의 태도가 안 전 후보의 행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이번 대선3차 패널조사는 안 전 후보의 향후 행보와 그의 지지자들 표심의 향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들을 보여준다.

지지자 63.5%, 문 후보 적극 도와야

[그림1]은 안 전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안 전 후보 지지자들의 태도를 나타낸다. 우선 안 전 후보 지지자들의 77.2%가 안 전 후보가 정치를 계속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 전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63.5%인 반면, 36.2%가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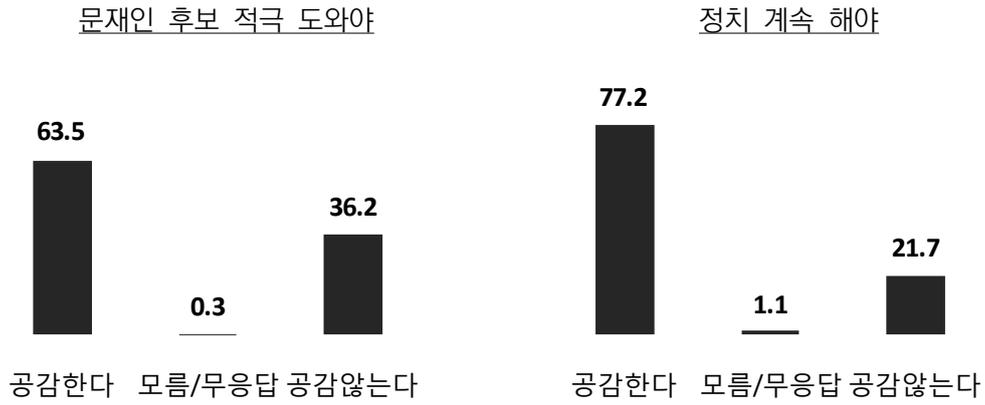
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뜻 보면 이 조사 결과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고무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전 후보 지지자들 을 안 전 후보 사퇴 후 대선 선호후보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2] 참조).

안 전 후보 사퇴 후 문재인 선호를 표명한 안 전 후보 지지층의 83.4%는 안 전 후보가 문 후보를 적극 도와야 한다고 답했지만, 부동층으로 돌아선 안 전 후보 지지층의 38.1%만이 안원장이 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부동층 전환자들은 누가 대통령감인가에 대해서도, 17.7%만이 문 후보를 뽑았고, 64%는 적합 후보가 없다고 대답했다. 다시 말하면 안 전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부동층으로 전환한 사람들의 다수는 문재인 후보를 안 전 후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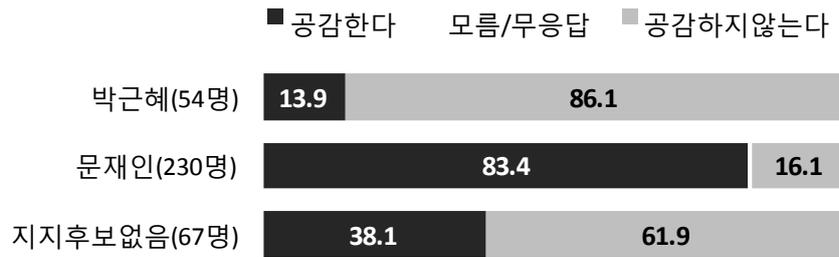
부동층으로 돌아선 표심을 잡기 힘든 이유

물론 안 전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돕는 행보를 보일 경우, 안 전 후보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단일화 과정에 실망해서 부동층으로 돌아선 안 전 후보 지지자들의 표심을 문재인 후보에게 돌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

[그림1] 안 원장 지지자들의 안 원장 행보에 대한 태도(%)



[그림 2] 안철수 지지층의 대선후보 선호별 문재인 후보 지원에 대한 태도(%)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대선패널조사" 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총선 1차 조사	총선 2차 조사	대선 1차 조사	대선 2차 조사	대선 3차 조사	대선 4차 조사	대선 5차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대선3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11월 25 - 27일 (3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416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5%
패널유지율	70.8% (최초 패널 2,000명 기준)